

지역 매아리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2019년도 1/4분기 부안군 통합 방위협의회의를 26일 8008부대 1세대 안보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북한의정세 및 신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준비태세 확립 대하여 군부대와 유관기관간 중심으로 격의 없는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병영 체험등으로 서바이벌 사격 체험장으로 이동해 사격에 대한 이론, 실기고육, 서바이벌 사격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바이벌 사격 진행과 연습용 수류탄 투척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2.27일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로 화해분위기가 어느때 보다 더 고조 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안전과 안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관·군·경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고 불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권익현 부안군수(통합방위협의회 의장)는 오는 5월에 실시하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와 2023년 부안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세계잼버리 대회도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별로 세심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안군이 세계속의 부안으로 도약 되기를 희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새암길 상점가에 40면 규모 주차장 조성

정읍시가 도심과 상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새암길 상점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비와 시비 총 21억2000만원(국비 11억2,560만원, 시비9억7,640만원)을 투입해 수성동 575-5번지 일대의 1.173㎡ 부지에 4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설계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빠르면 내달 공사에 들어가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새암길 상점가는 의류 관련 특화거리다. 100여개의 의류·잡화·푸드 등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 소비자와 상점 업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쪽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지도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빈번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의 주차 불편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원도심과 인근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도심과 상점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26일 정읍 토마토 종합컨설팅을 가졌다.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

정읍토마토 종합컨설팅... 8000만원 투입 맞춤형 생산 기반 다지기 '총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정읍 토마토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이에 양 기관은 26일 정읍 토마토 종합컨설팅을 가졌다.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제연구소 이문형 강사를 초청해 맞춤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강사는 이날 병해충 등 불철 환경적 환경 관리와 컨설팅 성공·실패 사례 등 수출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지역 내 농가 재배하우스로 이동해 포장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하고 농가별 재배 방식과 시설 설비,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 농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컨설팅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원인을 알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

품질의 신선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는 일본에만 수출하고 있으나 영농기술 지도 등을 통해 고 품질 토마토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8천만원을 투입, 맞춤형 생산 경영기술을 도입해 수출관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음주 후에 찾는 해장라면으로 입소문**

전국 최대 산지에서 바로 맛보는 고창 바지락 라면 '화제'

살이 통통 오른 조갯살에 저절로 침이 고인다. 국물을 한 모금 넘기면 겨우내 몸 안에 쌓인 모든 독소가 해독되는 느낌이다. 전국 최대 산지에서 맛보는 신선한 바지락 라면의 맛에 빠져보자.

고창군이 최근 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로 '바지락 라면'을 선보여 화제다. 고창군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드넓은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최대의 바지락 산지다.

고창군 전통시장에서 파는 '바지락 라면'은 싱싱하고, 살이 통통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깊은 맛을 낸다. 적당히 짭짤하고 뒷맛은 시원하다. 해풍을 맞은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기본 좋은 듯한 매운맛도 있다.

적당히 간이 밴 면발은 쫄깃하고 국물은 구수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 주분과 동시에 반나절 이상 해감한 바지락과 채소, 면을 넣고 삶아 내기 때문이다. 겹질째 붙은 바지락을 까먹는 재미도 솔솔하다.

앞서 고창군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전통시장'의 슬로건을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무병장수 전통시장'으로 삼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상생경제와 정갈한 과정은 '바지락 라면'의 유인 효과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고창 전통시장이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내고장 고창,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

군,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 추진 내달 15일까지 참가단체 접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는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알리는 사업이다.

지킴이들은 마당쓸기, 배수로 낙엽 제거, 잡초 제거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는 '1단계 1문화재' 지정으로 고

창군 공직자와 사회·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학교 등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3월15일까지 군청 문화유산관과 해담읍·면 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역사요,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읍시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산후 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50,844원)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회귀난치성 질환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태된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

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맞벌이 가정이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직장가입자 4인기준 건강보험료 180,250원)로 확대된다.

보건소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서비스 비용에 따른 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소득유형과 아기의 출생순위, 태아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부부 신분증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39-6126)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부안군은 만 6세 미만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발달선별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로 확진된 영유아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영역인(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을 평가한다.

영유아 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발달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하며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평적인 검진항목을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시 정밀검사 또는 추후검진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

행해 장애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금액은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준다.

구비서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차상위경감대 상자는 증명서,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진료검진팀 (☎ 063-580-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90  
www.gangsanwine.com